

## Ⅱ. 特別講演 要旨

### 담배사업 환경변화와 R&D의 역할

강 용 탁

한국인삼연초연구원 경영전략연구소

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“IMF 관리체제”라는 위기를 맞아 사회 전분야에 걸쳐 구조 조정의 바람이 거세다. 특히 국내담배산업이 겪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는 그 폭이나 강도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.

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 추세이다. 시장경제의 확산은 시장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촉진시키고, 이는 결국 제조담배나 원료인삼분야에서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차츰 제거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.

또 다른 요인은 지금까지 독점제조권이 보장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라할 수 있다. 민영화는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경영효율과 외화유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며,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공사의 매각방침과 매각일정에 대해 정부계획을 밝힌 바 있다. IMF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이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 가입한 만큼, OECD 국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(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: MAI)에 의해 담배제조분야에 대한 회원국들의 투자를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.

이러한 담배산업의 구조적 환경여건 이외에도 1995년의 국민건강증진법과 1997년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흡연 및 광고관측 규제는 이미 선진담배시장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며, 그 외 실질적인 담배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담배의 건강위해론에 따른 소송과 담배제조물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문제를 들 수 있다. 이는 물론 미국담배시장에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들이나, 그 파급효과는 이미 전세계적인 것이 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.

담배수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또 다른 환경변화의 하나는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를 시발로 해서 일어난 경제위기를 들 수 있다.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감소가 흡연인구와 흡연량의 감소로 이어져 세계 담배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상당부분 담배소비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. 여기에 덧붙여 조세정책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인상 및 이에 따른 가격인상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.

이러한 담배시장에서의 법적, 제도적 및 경제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흡연자들의 담배에 대한 취향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. 필터타입 담배와 아메리칸 블렌딩 담배타입의 선호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담배의 건강위해문제와 맞물려 저타르, 저니코틴 계통의 담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. 이는 전세계적인 경향으로서, 특히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.

이러한 환경변화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, 향후 담배제조와 신제품의 연구 방향을 저부류 연, 저타르, 저니코틴 타입의 담배개발로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. 무첨가제담배(additive-free), 무연담배(smokeless), 바이오필터담배(cigarettes with bio-filters) 등과 같은 안전담배(safety cigarettes)의 개발과 출시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.

또한 직접,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개별 그리고 집단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장기적으로 “더 건강한 담배(healthier cigarettes)”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함께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. 이러한 점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R&D에의 집중투자가 요구되며, 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확보, 해외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및 공동개발 노력을 통해서 담배산업의 핵심 역량육성 및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. 특히 앞에서 살펴본 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기술과 연구역량의 육성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제도적 변화와 소비자의 취향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연구와 개발방향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.